

서효인의 '소설처럼'



생추어리를 아시나요 - '동물의 자리'

고기 없이 밥 먹은 지 오래되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부유했나 싶지만 끼니마다 소고기를 굽고 돼지고기를 삶아야만 육식이 게 아니다. 우리가 먹는 찌개, 국, 반찬 심지어 간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물이 인간의 입에 들어가기 위해 함양된다. 인간은 동물을 효율적으로 먹기 위해 대량 사육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동물의 개체수는 아프리카 초원의 야생동물의 그것보다 몇 배는 많다. 어떤 생명은 오로지 음식으로 쓰이기 위해 태어나 몸을(고기를) 키우는 데 짧은 생을 바치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죽는 것이다. 소는 24개월이면 육우가 되고 돼지는 6개월 이후 삼겹살이 된다. 우리는 그만큼 먹고 그만큼 다시 키운다. 이걸 키운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한 인간은 먹기 위해서만 동물을 곁에 두는 건 아니다. 관광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 때로 위로받기 위해 동물을 거두고 키운다. 2023년 8월에는 이유 모르게 경북 고령의 농가에서 평생을 살았던 암사자가 우리를 탈출해 다소 당황스러웠을 자유를 1시간 10분 누리고 사살되었다. 같은 해 3월에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하는 얼룩말이 사육장을 탈출해 서울 시내를 활보하다 마취총을 맞고 쓰러져 포획됐다.

어떤 동물은 마음을 위한 실험체로 쓰이고 어떤 동물은 관광을 위한 도구로 쓰인다. 어떤 동물은 가족처럼 살다 하루아침에 버려지기도 한다. 가족을 벗겨 가방

을 만든다. 털을 뽑아 옷을 만든다. 이렇듯 인간은 지구의 생물들 사이에서 절대 권력을 쥐고 있다. 인간은 동물과 같이 살지 않는다. 인간은 동물을 사용하거나 보호한다.

김다은 정운영 쓰고 신선영의 사진이 더해진 책 '동물의 자리'는 간단하게는 '생추어리' 탐방기다. 복잡하게는 인간과 동물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공간을 상상하는 책이다. 인간 대부분은 동물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방법을 모르거나 잊었기에 복잡할 수밖에 없다. 가는 길이 복잡하니 중간 기착지가 필요할 것이니, 함께 생추어리에 들르기로 하다. 생추어리(sanctuary)는 일반인의 접근을 막는 신성한 장소, 성역을 뜻한다. 책에서는 성역보다는 안식처, 보호구역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위기에 처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구출해 만든 농장이라 할 수 있다. 그중 일부는 중세 시대의 성역처럼 정직한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것이 동물을 자연스레 늘어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인제에는 여섯 명의 (이 책에서는 동물터러 '마리'가 아닌 '명'을 붙인다.) 소들이 지내는 생추어리가 있다. 불법 도축소에서 구출된 소들은 각기 이름이 붙어 생추어리의 폐교에 산다. 활동가, 돌봄가족과 어울려 살아간다. 고기가 되지 않고, 태어난 대로 동물답게 살아간다. 화천에는 곰 보금자리가 있다. 많은 곰이 응답 체취

를 위해 사육되었다. 이제는 쓸모를 다해 철창 안에 살고 있다. 지금쯤 곰들은 동면에서 깨어날 즈음이겠다. 창살 안에서 쓸개즙을 채취당할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테다. 제주 꼭자왈에는 말 보호센터가 있고 경마장에서 평생을 죽도록 달렸던 말이 거기에 산다. 경기도 어딘가 새벽이생추어리에는 종돈장에서 구출된 새벽이와 실험동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잔디가 산다. 각종 살처분에서 살아남은 돼지로.

동물권에 대한 논의는 간명하고도 복잡하다. 생명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인류의 오랜 대전제를 떠올리면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지금 그깟 동물이 큰 문제냐는, 답이 정해진 물음 앞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요즈음 같은 시국에 동물은 무슨 동물이란 말인가. 하지만 인간은 고기를 마음껏 먹는 존재인 동시에, 동물을 깊이 생각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생추어리는 지금 한국에서 매우 급진적인 공간일지도 모르지만 현재의 동물 산업의 실태와 동물을 착취하는 현실을 되짚어보게 하는 유토피아다. 당장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되거나 환경보호론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마음 한쪽에 주저함이라도 남는다면, 눈과 귀를 닫은 채 마음대로 주먹을 휘두르는 인간이 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작더라도 희망은 시작될지도 모르겠다. <시인>

의료칼럼

독감 예방접종 누구나 접종 대상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원장

나타나기도 한다.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 호흡기질환, 만성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어르신, 소아, 만성질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잘 발생하여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강조하고 있다.

독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는 가능하면 빨리 항바이러스제인 오셀تام비르(oseltamivir), 자나미비르(zanamivir) 등을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합병증이 생겼거나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한다. 18세 이하 소아는 아스피린과 라이 증후군과의 관련성 때문에 아스피린 투여를 금한다.

대다수의 예방주사는 접종을 하고 나면 영구적으로 효과가 지속되는 편이다. 그렇지만 독감 예방주사는 효과가 6개월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매년 맞아야 한다. 독감 예방주사 효과가 짧은 이유는 독감의 원인이 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속적인 변이로 매년 다른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맞은 독감 예방주사의 항체가 있다면 올해 독감은 예방하지 못한다. 따라서 매년 어떤 유형의 인플

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할지 예측하여 새로운 백신을 출시하고 있다. 접종 즉시 바로 항체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항체 생성까지 2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10월 안에 독감 예방주사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독감 예방주사는 생후 6개월이 지난 모든 사람들이 접종 대상자이다. 건강한 성인들은 독감이 걸리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호전되기 때문에 접종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은 독감이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또한 치사율이 0.5% 내외로 매년 독감에 의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다. 건강한 성인이 독감에 걸리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함께 사는 자녀, 부모님께 독감을 전파할 경우 매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남에게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독감 예방주사를 꼭 맞아야 한다.

특히 만성질환자, 어르신, 소아 등의 고위험군은 합병증이 잘 발생해 입원이나 사망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아말로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폐렴뿐 아니라 뇌수막염, 균혈증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대상포진 등 필요한 백신을 함께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기고

광천상무선, 광주의 미래에 최선인가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

광주시는 이미 도시철도 1호선을 운영하면서 매년 5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호선이 개통되면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광천상무선까지 추가된다면 재정 부담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운영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에서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무임승차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도시철도는 운영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를 가지기 쉬우며 적자가 발생하면 결국 지방정부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무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도 철도 운영에는 유지·보수 인력이 필수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에 따른 추가적인 교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도시철도 건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광주의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불과하다. 반면 서비스업(62.4%)과 제조업(25.6%)이 경제의 중심을 차지한다. 도시철도 공사가 단계적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할 수는 있지만 공사가 끝난 후에는 지속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광주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건설 사업이 아니라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광주시는 공공기여금으로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예산을 반드시 도시철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예산이 문화·관광·창업 지원 등 미래 산업 육성에 활용된다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광주 경제에 더 이로운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도시철도를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교통망을 개선할 방법이 있다. 서울과 대전은 BRT(간선급행버스) 시스템을 확장하고 신호 우선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을 확보했다. 생태도시로 유명한 브라질의 쿠리치바는 인구 200만 명이지만 지하철 없이도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는 이미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을 제대로 운영한다면 굳이 도시철도를 추가하지 않아도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막대한 도시철도 건설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쉽다. 기존의 교통망 개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대형 인프라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정책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광천상무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사업이 아니다. 이는 광주의 재정과 시민들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다. 운영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더 효율적인 대안이 없는지, 도시철도가 아닌 방식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도시 정책은 신중해야 하고 도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업일수록 더욱 철저한 계획과 분석이 필요하다. 광천상무선이 정말 광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이제라도 냉정하게 평가해볼 때다.

社說

서남권 관문 공항 로드맵 정부가 조기 매듭을

광주시가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임시로 운항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그제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지역민들과 여행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정부측에 이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시적이지만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띄우게 해달라는 요구는 지난해 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문이다. 사고 여파로 지역에서만 2만여 명이 여행을 취소하면서 여행업계 피해액만 300억원이 넘게 발생했다. 따라서 광주시의 요구는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와 고사 위기의 지역 여행업계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환영할 일이다.

다만 격정스러운 점은 광주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를 계기로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으로의 이전을 백지화하려는 여론이 불붙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며칠 전에는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무안공항의 안전성 문제를 들어 광주공항 이전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 시장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정부가 조속히 무안공항의 물

리적 안전과 광주시민의 심리적 안정을 담보하는 무안공항 재개발 계획과 함께 서남권 관문공항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강 시장의 요구는 자칫 무안공항으로 이미 결정된 서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재검토 할 오해 소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는 무안공항 재개발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광주공항의 국제선 한시 운항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가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트리거가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 3자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광주·전남 운항 재개를 계기로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으로의 이전을 백지화하려는 여론이 불붙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며칠 전에는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무안공항의 안전성 문제를 들어 광주공항 이전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 시장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정부가 조속히 무안공항의 물

영터리 출제에 문제팔이...본분 잃은 교사들

광주지역 고교 교사들의 평가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일부 교사는 사교육 시장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파악한 공·사립 고등학교 68곳의 지필평가 재시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239건의 재시험이 치러졌다. 재시험 사유로는 '정답 없음'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출제 오류 75건, 복수 정답 14건, 문항 전체 3건, 기타 36건 등이었다. 시험이 잦은 교과목은 과학 68건·사회 66건·수학 48건으로 3과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재시험 건수가 2022년 164건, 2023년 19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라는 데 있다. 학생이 교사의 잘못 때문에 수험 고통을 겪는 일이 매년 되풀이되고 당당히 공교육의 신뢰까지 떨어뜨리는 악순환이다.

광주 일부 교사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사교육 카르텔과 결탁해 문제를 팔아

넘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립고교 교사 A씨는 수능 출제 합숙소에서 만난 타 지역 교사를 통해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학원 등에 총 26회에 걸쳐 수능 모의고사 문항 등을 제작·판매하고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학교 교사 B씨도 사교육업체와 거래해 3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해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광주 교사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나 오류 없는 출제는 시험 공정성의 기본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시험 문제를 사교육시장에 팔아 넘기는 것은 교사로서 본분을 저버린 행위다.

광주시교육청은 공교육 신뢰 회복 차원에서 시험 전문성을 강화할 대책을 마련하고 교사들의 비위 근절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필사'(筆寫)하면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는 성경이나 불경을 베껴 쓰는 일이다. 이제는 유명작가가 된 이들이 문청 시절 선배 문인의 작품을 일일이 베껴 썼다는 이야기도 생각난다. 소설가 조정래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원고지 1만6500장 분량의 '태백산맥'을 필사하게 한 일은 잘 알려져 있다. 보성 태백산맥문학관에 가면 조각가의 육필원고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전국의 독자들이 쓴 필사본이 전시돼 있다.

최근 필사(筆寫) 열풍이 불고 있다. 20만부 넘게 팔린 유선경 작가의 하루 한장 나의 어휘력

라 쓰는 필사책은 팬들에게 인기가 높다. 흥미로운 건 '이집트 상형문자 필사'다. 이집트 문헌학자 유성환 박사가 수천 년 전 고문서에서 골라낸 상형문자 문장을 모았다. '나의 심장은 사자보다 강하다', '존재하는 한 그대의 심장을 따르라', '기억에 남는 것은 친절함이다' 등 50개의 문장을 마치 그림이나 다른 없는 상형문자로 써(그려)볼 수 있다.

창비시선 500편 출간을 기념하는 '시로 채우는 내 마음 필사노트'에는 나희덕·황

인찬 등 시인이 직접 고른 100편이 실려 있다. "어떤 이야기/어떤 인생/어떤 시자의/아

을 위한 필사노트'는 '모모', '토지' 등 소설, 시, 산문에서 뽑은 문장을 써 볼 수 있다. '작별하지 않는다', '행', '검은 사슴'을 묶어 한강 스페셜 에디션을 펴낸 문학동네는 필사노트를 세트에 포함시켰다.

시와 소설, 산문 위주로 구성됐던 필사책이 영역을 확장중이다. 게임 선편 이후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헌법 필사' 책이 인기다. 5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원소집이용 책이 따로 나왔다. 밴드 '데이식스'와 아이유, 태연의 노랫말을 따

를 답게 시작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서러진 흰 나무들 사이를 거닐며 생각해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은 가장 좋아하는 필기구로, 책에 실린 진운영의 '아름답게 시작되는 시'의 한 대목을 필사해 보았다. 또박또박 한 글자씩 써내려가다 보니 글씨가 마음에 새겨지는 듯하다.

필사가 문장을 베껴쓰는 데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책임기와 궁극의 자기 글쓰기로 이어진다면 더 없이 좋겠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권)(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